

경찰, 불법 홀덤펍 집중 단속...1004명 검거

작년 8~12월 다섯달 동안 집중 단속 범죄수익금 46억5000만원 몰수·추징

경찰이 지난해 다섯달 동안 불법 홀덤펍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도박장 운영자와 이용자 1004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46억여원을 몰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인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

로 상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인식 부족으로 현금 환전 등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우중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인천경찰청은 홀덤펍 단속을 피하고자 포인트로 관리하는 환전어플을 개발해 경기·인천 지역 홀덤펍 19개소와 가맹을 맺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 149명을 검거했다. 운영진의 범죄수익금 약 28억원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홀덤펍 2곳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과 이용자 45명을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경쟁업체 업주의 목에 커터칼을 목에 겨누고 폭행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딜러를 고용해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은 홀덤펍 운영진과 이용자 6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딜러 등 중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는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몰수하고, 역할 분담 등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자 제보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위도 잊은 전력 질주' 7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4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추위도 잊은 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새해에도 국내 경기 나쁠 것"

직장인 10명 중 6명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도 국내 경기 불황은 계속될 거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삭감 및 구조조정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감질119는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65.5%가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응답 결과에 영향을 끼친 특성은 성별과 업종으로 분석됐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 종사자(71%)가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관계 변화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5.3%가 고용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39.1%)보다 높은 수치다.

응답자의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답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

환되는 등 고용 형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성별로는 사무직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30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생산직, 일반사원급에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 형태 악화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20.8%로, 정규직(11.3%)과 10%p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 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 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11.4%, 수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3.5%였다.

병원서 소화기로 환자 머리 가격, 숨지게 한 70대 무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심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을 심신상실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경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들이 제지하자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잠을 자고 있던 B(80대)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20년 8월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A씨의 치매 및 인지 기능 장애 정도는 지남력(장소, 시간, 사람 등),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유지에 있어 주무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됐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delirium)이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의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사능력 문제 등으로 첫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A씨가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급지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며 "형법 10조 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대한 원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슬비기자



무안경찰, '무안 여성 일상지킴이' 위촉식
무안경찰서(서장 김정환)에서는 지난 4일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치안의 일환으로 '무안 여성 일상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 '희망 두드림' 자체 선도프로그램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본격적인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순천경찰서에서 초·중·고 청소년 대상 '희망 두드림'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순천=김승호기자



장흥경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시무식 개최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지난 2일, 각 과장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 시무식행사를 가졌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해경, 2024년 갑진년 새해 시무식 이어 총흔담 참여 가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일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시무식 행사를 갖고 총흔담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공경맞춤 산업단지 화재안전 간담회 가져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지난 4일 담양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소방, '더불어 사는' 안전한 만원주택 특수시책 추진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